궁금한 건 못 참지

성경 07

1. 복음서는 왜 네 개 인가요? 하나로 하면 안 되나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조금씩 다를까?"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같은 사건인데도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에서 어떤 복음서는 나귀 한 마리를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은 두 마리를 언급합니다. 이런 차이를 보면 "성경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생각보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먼저 제자들과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중하게 구전으로 전승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전승과 증언을 바탕으로 각 복음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사건을 전하는 방식이나 강조점에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단순히 사건을 연대순으로만 기록하려는 역사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각자의 목적에 따라 내용을 선택하고 배열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부분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어떤 부분은 간략하게 소개하거나 다른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자주 보여 줍니다. 마가복음은 능력 있게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빠르고 역동적으로 그려 냅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강조하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깊이 있게 증언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같은 풍경을 네 사람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사진을 찍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진마다 구도와 시선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같은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은 산을 크게 담고, 어떤 사진은 강을 중심으로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다른 풍경을 찍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장의 사진을 함께 볼 때 그 풍경을 더욱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도 이러한 차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복음서를 하나로 합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2세기경 타티아누스(Tatian)는 네 복음서를 하나로 엮은 《디아테사론(Diatessaron)》을 만들었고, 이 책은 일부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를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복음서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각 복음서가 지닌 고유한 관점과 신학적 메시지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표현이나 세부 사항에는 차이가 있지만, 핵심 메시지는 모두 같다는 사실입니다. 네 복음서는 한결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증언합니다. 결국 복음서가 네 권이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장점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만 들을 때보다 네 사람의 증언을 함께 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이지만, 그 하나의 복음은 네 권의 복음서를 통해 전해집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서로 경쟁하는 기록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증언입니다. 네 복음서를 함께 읽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복음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고 풍성하게 만나게 됩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복음서를 읽으면서 "왜 내용이 다를까?"라고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나누어 보세요.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자주 읽거나 가장 마음에 와닿는 복음서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_____

- 글에서는 복음서 저자들은 단순한 역사가가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진 증언자들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각 복음서가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요?

  → 마태 _____

  → 마가 _____

  → 누가 _____

  → 요한 _____

- 네 복음서 저자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강조점이 달랐던 것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내 삶을 역동적으로 이끄시는 분, 내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등)

  → _____

- 나에게 조금 낯설거나 소홀했던 복음서는 어떤 것인가요? 한 곳을 선택해 읽으며, 그 저자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네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다른 기록 속에서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겸손히 배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